

北韓의 美·日接近과 韓國統一에 미치는 影響

토론회용
(국통 74-15) 3

1974. 11.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研究用役의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責任者：韓 潤 鍾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員

目 次

1. 머 리 말	3
2.北韓의 外交目標과 最近動向	5
가. 外交目標과 活動	5
나. 最近 外交活動의 特徵	8
3. 對日接近	11
가. 接近政策의 背景	11
나. 接近狀況	13
다. 經濟交流關係	15
라. 文化 人事交流關係	22
4. 對美接近	32
가. 接近政策의 背景	32
나. 接近狀況	34
다. 對美平和條約 提議	38
5.北韓의 對美·日接近과 美·日의 最近動向	41
가. 韓半島問題와 日本의 動向	41
나. 韓半島問題와 美國의 動向	45
6. 結 論	50

1. 머리말

北韓의 基本戰略은 말할 것도 없이 「全韓半島의 共產化」에 있다. 이 基本戰略을 遂行하기 위해 그들은 이른바 3大 革命力量 強化 即 ① 北韓内部的 革命基地強化 ② 南韓内的 革命力量 強化 ③ 國際的 革命支援力量強化를 強力히 推進하고 있다.

이 3大 革命力量強化 중에서 外交政策의 活動部門은 國際革命力量 強化에 屬한다. 따라서 北韓의 初期의 對外政策의 基軸은 對蘇, 對中共, 外交의 展開에 集中되어 있었다. 即 「마르크스·제닌」主義의 原則을 堅持하면서 蘇聯·中共을 비롯한 共產主義國家들과의 統一과 團結을 圖謀하는 것이 그들의 第一次 外交目標이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와서의 中·蘇紛爭의 激化 그리고 亞阿地域 新生國들의 UN 大挙加入과 그에 따른 舞臺에의 커다란 進出 등을 契機로 北韓의 外交活動 方向은 共產圈에서부터 中立圈으로 커다란 方向轉換을 하게 되었다. 北韓은 國際情勢의 多邊化에 따른 對中立國外交의 必要性을 깊이 認識하고 이른바 「反帝, 反植民, 民族解放戰」의 旗幟를 내걸고 아시아·아프리카·中南美諸國에의 浸透 外交를 積極化하였던 것이다.

그後 60年代 中葉에 들어 와서는 中蘇紛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独自の 外交路線을 展開하고자 이른바 「自主路線」을 내걸고 中·蘇 어느쪽에도 편향하지 않는 中立을 견지하면서 中立非同盟에의 浸透를 더욱 積極化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自由世界의 諸國에까

지 外交的 浸透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었다.

그러다가 70 代의 國際情勢의 急激한 變化 卽 닉슨의 中共訪問에 의한 美·中共間의 關係改善, 日·中共間의 國交正常化, 美·蘇의 平和共存的 協力增大등을 契機로 北韓도 國際的 潮流의 大勢에 便乘하여 表面的으로는 平和指向的 對外姿勢를 나타내면서 實質的으로는 韓國의 國際的 地位의 弱화를 노리면서 그들의 國際的 革命支援力量의 強化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72年 12月 30日 政務院總理인 金一이 그의 첫 就任演說에서 「앞으로 南北韓에 대해 다같이 公平한 政策을 適用하는 모든 資本主義 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用意가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北韓의 外交的 活動은 對西方에까지 擴大할 것임을 分明히 학바 있으며 이에는 美·日도 該當됨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北韓의 對美·日接近活動을 살펴보고 그것이 韓國統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北韓의 外交目標와 最近動向

가. 外交目標와 活動

現在 南北韓은 休戰線上이 아닌 國際的 外交舞臺에서 치열한 外交戰爭을 하고 있다. 이것은 緊張緩和와 和解라는 國際的 潮流 속에서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 強大國간의 均衡模索이 거세게 韓半島에 밀려 닥치고 있고 또한 南北雙方이 어떻게 하면 國際的 條件을 自己에게 有利하여 誘導, 展開시키느냐 하는 直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北韓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對外政策의 背景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原則에 바탕을 두고 있고 理想的으로는 世界革命의 完遂가 先決問題이나 分斷國이라는 狀況에서는 그의 制約을 打開하며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支持勢力을 獲得하는 것이 當面目標인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北韓의 外交目標를 보면 大概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北韓 自體의 防衛體制를 確立하고 安全을 維持하기 위해 共產主義諸國과의 團結과 紐帶 強化

둘째, 韓半島 共產革命을 實現하기 위한 國際的 承認과 支持與論을 造成 獲得하기 위하여 政治的 社會的制度가 相異한 國家들과의 紐帶關係의 增進

셋째, 韓半島 赤化에 결정적 妨害가 된다고 생각되는 美國의

對韓 軍事的 經濟支援을 中斷시키기 爲해 亞阿, 中南美諸國과의
修交 및 紐帶強化

네째, 廣範한 國際的 承認과 支持를 받고 있는 韓國의 國際的
地位의 弱화 내지는 孤立化企圖와 北韓의 國際的 地位의 相對的
向上圖謀

이러한 外交路線에 따라 北韓은 外交網擴張을 爲한 集中的인 外
交活動을 展開하면서 訪問外交 招請外交를 通해 對外弘報活動에도
加一層의 拍車를 加하고 있다. 弘報活動은 外交目標의 達成을 爲
한 主要한 手段이기 때문이다.

① 韓國統一問題와 關聯된 諸問題를 北韓側에게 有利하게 造作
世界輿論을 形成하며 韓國의 國際的 孤立的 劃策

② 韓國內에 革命戰爭이 高潮되고 있다고 허위 宣傳함으로써 北
韓의 偽裝平和攻勢를 積極化 함과 同時에 北韓의 對南浸透의 合法
化 企圖

③ 北韓을 社會主義의 東方哨所로 내세우면서 共產主義 國家들과
의 團結 및 支持 呼訴

④ 北韓의 分野別 建設相을 과대 선전함으로써 國際的 地位 向
上 圖謀

⑤ 東西間의 和解氣運과 分斷國의 同時承認 U N 同時加入 趨勢에
便乘, 國際적으로 「두개의 韓國」을 企圖하면서도 韓國이 2개의
韓國을 指向하고 있다고 허위 선전 展開

이러한 對外的 弘報活動을 通해 北韓의 國際的 地位 向上과

南北韓 同等地位 確保뿐만 아니라 新6個年 計劃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導入을 目標로 한 外交的 浸透와 實利追求에 급급하고 있다. 더욱 西歐諸國과 日本에까지 等距離政策을 誘導하고 있는가 하면 對南平和統一攻勢와 對U N外交攻勢에 더욱 熱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이 對外活動에 熱을 加하고 外交姿勢를 柔軟路線으로 變更, 広域外交에 總力을 集注하는 한편 對美·對日外交에도 눈을 돌리게 된 것은 70年代에 들어 와서의 急激한 國際情勢의 變化의 影響이다. 말하자면 美·中共, 美·蘇聯, 日·中共의 接近等 國際的 緊張緩和는 金日成에게 國際社會에 對應해야 할 새로운 충격과 挑戰을 提示하여 주었고 이러한 國際的 狀況의 變化에서 對應姿勢를 보이지 않고 硬直性을 固執한다는 것은 國際的 支持의 競爭에서 韓國만을 有利하게 해 줄 뿐이라는 事實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的 側面에서 볼 때 北韓의 對外活動의 當面目標가 되는 것은

첫째, 「유엔軍事解体 및 美軍撤収로서 韓半島 赤化統一의 妨害要因의 除去에 있으며 이 目標을 위한 外交活動은 닥아오는 第29次 유엔總會에서 더욱 積極化될 것이다.

둘째로는 北韓自體의 安保를 極大化하고 對外的 위차의 強化를 통해 國際的인 支持를 擴大시 킴과 동시에 相對的으로는 中立陣營 및 西歐諸國의 對韓支持를 둔화시켜 韓國의 國際的 孤立을 劃策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나. 最近 外交活動의 特徵

以上에서 論及한 北韓의 外交目標, 對外弘報活動 方向, 그리고 當面目標에 따라 最近의 北韓의 外交活動의 特徵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北韓은 「自立路線」의 허울밑에서 中·蘇紛爭을 도리어 自己들에게 有利하게 逆利用하여 中·蘇 兩便으로 부터 繼續적인 經濟, 軍事支援을 確保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北韓·蘇聯·中共間의 三開關係라는 것이 1950年代와 같이 견고하지는 못할 지언정 中·蘇가 競爭적으로 北韓에 대해 經濟, 軍事援助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中·蘇 줄다리기式 外交努力은 어느 程度의 成功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中·蘇가 다같이 北韓을 어느 한 편에 密着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對外的 事情이 있기 때문이다.

蘇聯이 北韓을 支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① 對中共 偏向 견제, ② 中共의 對蘇 非難을 封鎖하기 위한 모든 共產國家들에의 支持表示, ③ 亞細亞集團安保構想에 대한 北韓의 支持獲得 등에 起因한다.

한편 中共도 北韓을 支持하지 않을 수 없는게, 그것은 蘇聯의 立場과 거의 相對的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의 外交的 特徵은 國際的 和解 「무드」와 第3勢力의 急進的 國際舞台에서의 登場에 便乘하여, 中立諸國에의 外交的 浸透

를 擴大하고 承認獲得 내지는 修交를 이룩하는 데에 있다.

北韓의 對中東, 對아프리카, 對北歐 諸國과의 外交關係는 急速히 늘어났으며 南北韓의 修交 또는 通商關係 維持國을 比較할때 102 對 80 으로 韓國이 훨씬 優位에 있기는 하나 그 隔差가 매우 縮少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세째로는 모든 國家의 유엔加入이라는 普遍主義의 趨勢에 傾向하여 (南北韓 UN同時加入은 反對하면서도) 유엔 專門機構 또는 其他의 國際機構에의 加入을 擴大하는 데에 있다.

即 世界保健機構 (WHO), 萬國郵便聯合 (UPU), 國際通商開發會議 (UNCTAD) 등의 UN 專門機構와 國際議員聯盟 (IPU) 에 이미 加入했는가 하면 지난 10 月에는 UNESCO 에도 加入했다.

네째로는 修交國家의 增大와 國際機構加入의 餘勢를 몰아 韓半島의 唯一合法 政府가 北韓 自身이라고 宣傳하면서 韓國의 國際的地位를 格下시키는 데에 있다.

다섯째로는 西方資本主義 國家들의 「市場擴大 努力」을 逆利用하여 一方的인 親韓 國家들을 北韓편으로 誘引하는 데에 力點을 두고 있다.

특히 日本과는 通商擴大와 資本技術의 導入을 交渉하면서 南北韓 等距離 外交의 方向으로 유도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最近의 外交活動의 特徵 중에서 특히 對美·日 戰略을 보면 ① 韓國의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休戰協定을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② 對日關係는

通商擴大를 통한 國交正常化를 이룩함으로써 韓·日條約이 自動的으로 廢棄되도록 하며 ③ 對美關係에 있어서는 우선 「平和協定」의 締結을 노려 유연한 姿勢를하고 있다고 判判하여 韓國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자 하는 것이다.

3. 对 日 接 近

가. 接近政策의 背景

1955年 2月 25日 南日 外相의 이름으로 發表한 声明에서 北韓은 「日本政府와 貿易, 文化關係 및 其他 朝·日 關係의 樹立·發展에 關한 問題들을 具體적으로 討議할 用意을 가지고 있다」고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外交路線의 變更을 公式으로 申明한 바 있다.

이 声明 以來 그 동안 日本과 北韓 間에는 事實上 經濟分野에서의 交流가 活潑히 展開되어 왔고 非政治的 分野의 交流에서 政治的 分野의 交流로 擴大되어 갈 氣味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日本·北韓 接近은 總體的으로 美·中共間 및 日·中共間의 關係改善의 摸索이라는 強大國의 緊張緩和政策과 現狀固定化政策의 余波로 나타나고 있는 現象이라 하겠다.

北韓의 對日本 接近의 政治的 背景은 대충 이러하다.

첫째, 強大國 間에 展開되고 있는 緊張緩和를 통한 現狀固定化政策 속에서 그들의 背後勢力인 소련과 中共 間의 不和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으나 美·中共 接近, 日·中共의 國交正常化, 美·日의 對蘇 平和共存 政策은 現實化되고 있어 이에서 오는 不安感을 感知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不安感을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통해 메꾸어 보려는 것이다.

둘째, 經濟, 文化交를 통한 對日本 人民外交를 強力히 實踐함으로

써。相對的으로 日本과 韓國과의 關係를 惡化 내지는 離間시키려는 것이다。

세째。특히 65年 韓·日國交正常화로 韓·日關係는 友好的인 關係 속에 密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과 日本과의 關係는 非正常的인 關係에 있는만큼 이를 可能한 한 조속히 脫皮하여 韓·日關係와 對等한 日本。北韓關係의 確立과 國際的 地位를 確保하려는 데에 있다。

네째。日本을 通하여 亞細亞는 勿論이고 世界舞台에의 國際的 進出을 피하려는 데에 있다。

다섯째。韓·日關係의 緊密한 結束은 北韓 自体의 安全保障과 韓國 共產化 統一實現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있으므로 韓·日間의 緊密한 結束을 阻止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誘導하려는 데에 있다。

여섯째。韓·日間의 緊密한 結束을 끝까지 阻止鬪爭함으로써 日本 政府로 하여금 窮極的으로는 韓·日基本條約을 自動 廢棄토록 誘導케 하고 「두개의 韓國」을 認定토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일곱째。赤化統一의 目標을 實現함에 있어서 日本國內의 輿論誘導와 함께 朝總聯의 對兩赤化 活動을 公式化하자는 데에 있다。

그리고 끝으로 經濟的인 面에서 北韓은 新6個年 經濟計劃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해서는 日本과의 經濟交流가 切實한 뿐 아니라 특히 그들의 主要 課題가 되고 있는 重需工業에 있어 日本의 近代의 技術과 資本이 必要한 것이다。

한편 日本 역시 對北韓關係에 있어서 積極的인 接近 姿勢를 取하고 있는데 그 背景은 이러하다.

첫째。日本의 對北韓市場 開拓과 값싼 原料確保라는 經濟的 寒利 追求이다.

둘째。韓國과의 政治的 經濟的 紐帶를 現狀化하면서 北韓과 經濟 面에서 우선적으로 徐徐히 接近함으로써 結局에는 政治的 接近을 實現하고 韓半島의 分斷을 合埋하자는 政治的 意義가 있다.

셋째 北韓은 中共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만큼 對北韓接近政策을 통해 對中共政策의 方便으로 利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對北韓에 대한 等距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 既定 事實化함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 美·中共·蘇와 同等한 發言 權과 介入을 발언을 構築해 두자는 것이다.

나. 接近狀況

以上과 같은 政治的 背景과 動機에서 出發한 北韓의 對日本 接近政策은 一括的 解決보다 漸進的 단계를 밟는 데에 力點을 두고 있다.

(1) 國交正常화와 같은 政治的 問題의 解決보다 民間 「베이스」에 依한 貿易增進과 擴大를 試圖한다.

(2) 貿易擴大와 併行하여 人士交流를 展開하고 이를 통해 北韓의 發展相을 紹介。宣傳한다.

(3) 北韓。共產黨의 實質的 支部로서의 役割을 日本內에서 하고 있는 「朝總聯」의 各級 組織을 擴大。強化하고 이와 더불어 日本

内 各 国 体 들 과 의 紐 帶 를 形 成 。 結 束 하 여 日 本 内 의 北 韓 同 調 支 持 勢 力 을 扶 植 。 煽 動 함 으 로 써 日 本 政 府 의 對 北 韓 政 策 을 積 極 推 進 하 게 끄 壓 力 을 加 한 다 .

④ 「日·朝協會」, 「日·朝貿易會」 등의 親善團體를 組織하여 經濟交流, 人事交流를 擴大하고 그들로 하여금 北韓의 對日本 接近政策에 積極 協調토록 한다.

⑤ 日本 言論界의 重鎮이나 與黨 議員들을 빈번히 招請하여 北韓을 視察케 하는가 하면 金日成과의 會見을 개최케 하는 등 「人民外交」를 積極 展開한다.

北韓의 對日 接近은 經濟·人事交流를 통한 「人民外交」에서 出發하여 政府水準의 政治交流를 實現하는 데에 그 基本的 特色이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日 接近의 方式은 經濟交流, 文化人事交流, 그리고 政治交流로 大別할 수 있다.

經濟交流에 있어서는 日本의 對北韓「플랜트」輸出問題, 輸出入銀行의 資金 使用問題 貿易事務所의 設置問題 등이 그 主要 懸案 對象이다.

文化 및 人事交流面에서는 言論人의 相互訪問, 文化人의 交流, 北韓 技術者의 日本入國, 朝總聯系 在日同胞들의 北韓 訪問 및 日本 再入國 許容 등에 걸쳐 廣範하고도 多元적으로 展開되고 있다.

政治 交流面에서는 「朝總聯」人事들의 北韓訪問, 日本政界 要人들의 北韓訪問, 北韓政治人事들의 日本訪問 등에 이르기까지 廣範하게

展開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日接近政策은

첫째, 人民外交를 強化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誘導함으로써 日本과 韓國의 密着을 견제하려는 데에 있고

둘째, 日本의 野黨, 言論機關에의 浸透工作을 展開하여 北韓의 地位에 대한 認定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國際的 地位를 改善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日本의 對北韓接近政策은 人士交流를 擴大함으로써 非公式的 關係를 強化하고 나아가서 「두 韓國」政策을 위한 事前措置를 취하려는 데에 있으며.

셋째, 經濟交流의 增大를 통한 實利追求를 圖謀함으로써 對北韓 資本과 技術投資에 의한 經濟的 進出을 擴大하려는 데에 있다.

다. 經濟交流關係

北韓과 日本과의 交易은 北韓의 對西歐貿易額 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가장 크고 또한 急激한 增大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韓國과 日本과의 關係에서 볼 때, 政治的·經濟的 面에서 매우 重要한 意味를 던져 주는 것이다. 北韓이 日本의 對北韓 差別政策에도 不拘하고 對日 經濟交流를 積極 推進하고 있는 것은 地理的 面에서 有利한 點도 있으나, 經濟交流 등의 非政治的 交流擴大를 바탕으로 하여 政治的 交涉의 條件과 基盤을 造成하자는 데에 있음은 接近狀況의 背景에서 이미 論及한 바와 같다.

北韓과 日本과의 經濟交流의 經過는 日本의 對北韓封鎖政策 내지

는 差別政策과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다. 1950年 北韓의 韓國南
侵에 의한 6.25 動亂을 契機로 北韓·日本間의 經濟交流가 全面
中斷된 이후, 韓國動亂이 休戰으로 끝난 다음 해인 1954年부터
근 1年간에 걸쳐 北韓·日本간의 貿易再開를 위한 움직임이 상당
히 高潮되었으나, 日本政府의 對北韓 人的 物的 交流의 再開不許
決定으로 日本과 北韓間의 公式的인 經濟交流는 인정되지 않아 왔
었다. 이러한 日本政府의 公式態度에도 불구하고, 1955年 11月과
1956年 3月에 「日朝協會」와 「日朝貿易協會」가 各各 創設되어,
以後 北韓·日本간의 交易關係를 改善하는 데에 重要的 役을 해
왔다.

北韓과 日本간의 貿易이 처음 開始된 것은 1956年 9月 中共
의 大連港을 經由하고 中共銀行을 통해 決済하는 形式이었는데, 이
것은 사실상 日本政府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主導機
關은 日本의 「國際貿易促進會」, 「日朝貿易會」, 「日朝協會」 등
세 民間團體와 北韓의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이었는데, 1958年
5月 日本長崎의 中共旗事件으로 말미암아 日·中共貿易이 中斷되자
北韓·日本간의 交易도 中斷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59年 6月
홍콩을 經由하는 形式의 交易이 再開되었는데 이것은 日本의 對北
韓 輸出品에 한해 認定되었다.

日本과 北韓간의 貿易이 公式으로 認定된 것은 1960年代에 들
어와서 이와 即 1961年 4月 日本政府의 「輸出貿易管理規則」의
改定에서 처음으로 日本의 對北韓 貿易을 法的으로 認定하였다.

1962年 11月에는 「日朝貿易會」의 主導的 活動으로 日本·北韓 간의 直接決濟가 可能하게 되었고, 日本의 貿易關係者들의 北韓入國 制約이 緩和되었다. 이에 따라 1963年 9月 日本의 三井銀行과 北韓의 「朝鮮」貿易銀行 사이에 「코제스」契約이 締結되어 그 해의 12월에 直接決濟가 實現되었다.

그러나, 貿易關係人의 相互往來, 長期延擱輸出, 기타 制約등의 問題가 남아 있었는데 71年 10월에 日本의 公明黨, 社會黨, 共產黨이 共同聯合하여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發起하였고, 同年 11월에 自民黨의 久野忠治議員을 委員長으로 하는 衆·參議員이 參加한 所謂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結成함에 따라 72年初에 久野議員을 團長으로 하는 11名의 議員團이 北韓을 訪問, 2月 23일에 日本의 「日·韓貿易促進議員聯盟」 및 「日·韓貿易會」와 北韓의 「國際貿易促進會」, 사이에 「貿易促進에 관한 合議書」라는 寬濶貿易協定을 締結하였는데 이 合議書에는 76년까지 日本과 北韓의 貿易量을 現在의 7~8倍인 5億弗 정도로 擴大할 것, 플랜트의 延擱輸出, 寬濶貿易의 形式을 推進하기 위한 貿易代表部의 設置 東京과 平壤에서의 商品展覽會, 開催 技術交流의 促進을 위한 技術者 往來의 許容, 등 本格的인 貿易을 위한 雙方의 여러가지 具體的 措置가 包含되어 있다. 역시 2月 19日에는 在日 朝總聯이 「株式會社 朝·日輸出入商社」를 發足시켜, 貿易代表部가 設置될 때까지 實質적으로 北韓의 日本內의 貿易代表部의 役割을 担当하게 하였는데 北韓은 이 商社의 設立을 契機로

- ① 日・朝貿易 拡大
- ② 經濟 및 人的交流의 促進
- ③ 国交正常化에 의 支援 促進 등을 積極 推進해 왔다.

72年 4月 18日 東京에서 開催된 「日朝貿易會의 72年度 定期總會는

- ① 貿易增加를 위한 北韓 貿易關係者의 招請
- ② 對北韓 「플랜트」輸出에 있어서 輸出入銀行 資金의 使用 承認 要請
- ③ 北韓 技術者의 日本入国 許可要請
- ④ (日・朝 輸出入商社)의 設立과 關係없이 日・北韓간 貿易의 계속 등을 決議하였다.

同年 5月 30日 在日 「朝總聯」의 才一副議長 金炳植이 主動이 되어 新日本製鐵, 東芝 등 有力한 企業들이 株主로 參加하는 「協亜物産」을 設立하여 北韓・日本간의 貿易窓口의 口實을 하려 하였으나 그 後 金炳植의 失脚으로 不振한 狀態에 빠지게 되었고 北韓側에서 는 「協亜物産」보다는 「朝・日輸出入商社」를 통해 貿易을 계속함으로써. 이것은 事實상 그동안 北韓의 通商代表部의 役割을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協亜物産 以外에도 安宅産業, 東工物産 등 이른바 北韓 友好商社들은 發電機, 合纖原料, 肥料, 「프랜트」 등에 관해 北韓과 商談을 벌여오기도 했으며 또 日本 触媒化學, 「히다찌 그룹」 등은 化學纖維 「플랜트」 輸出에 관한 契約을 맺는 등 活潑한 對 北韓 商談을 推進하여 왔다.

72年 7月에는 北韓은 모두 1千億「엔」에 達하는 財政借款을 「파운드」貨로 提供해 줄 것을 日本의 5個 銀行에 要請하였으며 同年 8月에는 日本의 「미쓰이」銀行을 비롯한 9個의 外國換銀行은 北韓의 「朝鮮貿易銀行」에 「뱅크론」을 供与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具體的 檢討를 하였던 것이다. 이 「뱅크론」의 總額은 約 2億弗 規模이었다.

72年の 活潑한 貿易擴大에 이어 73年에 들어서도 부산한 貿易 交渉이 進行되었다. 卽 1月 13日에는 日朝貿易協會使節團 30名이, 그리고 1月 20日에는 2陣 30名이. 各各 北韓을 訪問 大々的인 日·北韓 貿易交渉에 나섰다.

日本 通産省은 北韓·中共·東独·越盟등 共產國家로부터의 輸入을 抑制하기 爲한 事前許可制를 廢止하기로 方針을 세우는 한편 北韓과 民間協定을 맺고, 市場調査를 爲한 駐在員 事務所를 設치하기 爲한 交渉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73年 初 2個月 余에 걸쳐 北韓을 訪問했던 日朝貿易協會의 「아이가와 라이찌」 專務理事는 帰國後의 記者會見에서 日·北韓 間에 民間貿易事務所를 早速한 時日內에 設置하기로 基本的인 合意를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事務所가 開設되면 中共·日本間의 覺書貿易事務所에 相當하는 準政府「베이스」의 事務所 役割을 하면서 貿易協定の 締結 各種 市場調査등 貿易擴大의 役割을 担当하면서 兩側政府의 接觸 窓口의 口實도 하여 日·北韓間의 關係改善 내지는 關係正常化 문제에 커다란 影響을 미칠 것이다.

73年 5月 23日에 개최된 「日朝貿易會」의 定期總會는 다음과 같은 主要한 專業計劃을 採択한 바 있다.

- (1) 7月에 大規模 北韓 經濟使節團을 받아들인다.
- (2) 民間貿易事務를 東京과 平壤에 設置한다.
- (3) 相互綜合 商品展示會를 早速한 時日內에 연다.

「日朝貿易會」의 이러한 決議에 따라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傘下의 10名으로 된 經濟使節團이 北韓을 訪問하였고 이를契機로 從來 平壤에서만 年 1回 開催하던 北韓·日本간의 貿易商談도 東京과 平壤에서 年 2回씩 개최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日本·北韓간의 貿易은 急增的인 現象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72年度만 하더라도 日本·北韓 간의 貿易總量은 1億 3,175万 4千弗로서 日本의 對北韓 輸出이 9,344万 3千弗。日本의 對北韓 輸入은 3,831万 14弗이 었으나, 73年度에는 貿易總額이 1億 7,247万 8千弗로서 日本의 對北韓 輸出은 1億 16万弗。日本의 對北韓 輸入은 7,231万 8千弗이었다.

74年 7月 25日 日·韓貿易會는 今年度 上半期 중 日本의 對北韓 輸出은 約 9,960万弗。그리고 北韓으로부터의 輸入은 約 5,010万弗로 각각 昨年 同期에 比하여 2.4倍, 1.9倍 증가되었다고 發表하고 있다.

北韓과 日本간의 貿易量의 急增은 73年 12月 日本政府가 對北韓 腕 타올製造, 프렌트 수출 約 100万弗에 대해 輸出入 銀行資金 사용을 最初로 認可한 이래 日本의 對北韓 「프렌트」 輸出에 아무

런 制約 條件이 없게 됨에 따라 금년 들어와 74年 5月 現在 北韓으로부터 6個의 經濟 代表團이 訪日하는 등 貿易關係者의 訪日이 活潑해지고 프랜트 商談이 大型化되고 있는데 起因한다. 하겠다.

北韓·日本 간의 금년도 상반기 輸出入 總額이 約 1億 4,970万 弗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73年度의 경우 總額 1億 7,250万 弗과 거의 같은 額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北韓·日本 간 무역은 72年이래 계속 逆調의 幅이 擴大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의 6個年 計劃에 따른 重化学工業化 進行으로 日本으로부터의 프랜트類 輸入이 불가피한 反面, 對日輸出의 거의 全部를 점하는 資源의 安定供給이 採掘, 加工能力의 不足으로 이룩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北韓으로서는 73年부터 國內資金이나 技術不足의 「갭」을 對西方 外資導入으로 메꾸어야 할 必要性에서 西方諸國 國家들과의 무역을 확대해야 할 立場에 있는 반면, 日本으로서는 작년말의 國際的 石油 波動 이래 일어난 資源波動으로 資源에 대한 需要가 확대되고 있는 實情임을 勘案하면 앞으로 北韓의 日本 간의 무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北韓·日本間 輸出入現況

(單位：1,000 원)

年 度	北韓의 輸入	北韓의 輸出
1973	100,160	72,318
1974. 1~6	99,600	50,100

北韓의 對日本 輸出商品 構成을 보면 纖維原料, 鐵鋼, 非鐵金屬, 金屬鉍 및 非金屬鉍이 大部分을 차지하며, 品目別로는 生糸, 鐵鉍石, 銑鐵, 亞鉛塊, 銀塊, 대합조개, 無煙炭, 滑石 등이다.

北韓의 對日本 輸入商品에는 機械類가 거의 半을 차지하고 纖維類, 鐵鋼 등과 함께 거의 80%를 점하며 品目別로는 紡績機械, 폴리에스테르 短纖維織物, 메리야스機, 鐵管, 나일론, 長纖維織物, 폴리에틸렌 필름, 溫度處理機器, 貨物自動車, 氣體壓縮機 등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大型 플랜트 商談이 活潑히 進전되고 있는 것이 重要한 特徵인데 大體로 金利 年 6.25 ~ 6.5%, 延払期限 3 ~ 7年 保証金 20%의 條件으로 提供되고 있다.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72年 2월에 締結한 貿易促進에 관한 合議書에 의하면, 1976年까지 北韓은 日本에 工作機械, 工具類, 銑鐵, 合金剛材, 非鐵金屬, 磁鐵鉍, 마그네시아, 無煙炭, 黑鉛重晶石, 호타르石, 角石, 絹糸, 化學製品, 被服製品等 18個品目を 輸出하고 除草劑 工場設備, 自動車 工場設備, 필름베이스工場設備, 에틸렌 옥시드 工場設備, 에틸렌글리콜 設備, 폴리에틸렌 加工工場設備, 電子計算機 生産工場設備, 鋼鐵工場 및 플레이트 生産設備 등 20個品目を 輸入할것에 合議하고 있다.

라. 文化 人事交流關係

먼저 日·北韓間의 人士往來에 있어서는 71年 한 해 동안에 日本入國이 許可된 北韓人員은 31名으로서 그 중 26名은 「삼보로」 各季 「올림픽」 一等 스포츠관객자였고 조총련계의 再入國 許可도 27

名으로 거의 全部가 친족방문에 국한되었었다. 北韓 訪問이 許可된 日本人은 285名으로서 이들 北韓訪問 人士들은 大部分 商用이지만 言論人 18名, 文芸人 17, 左翼団体 12, 日・朝 協會 10, 国会議員 및 그 隨行員 9名等 各界 各層이 모두 包含되었으며 「스포츠」 關係人士는 不過 5名 뿐이었다. 特記할 것은 同年 9月 「고또」 朝日新聞 편집국장이 北韓을 訪問, 金日成과 會見을 가졌을 때 金日成은 日本과 國交수립 前이라도 貿易・自由往來・文化交流 記者交換등이 實現되기를 希望하며 與野黨議員들도 友好促進을 爲해 北韓을 訪問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였고 이어 10月에는 「미노베」 東京都知事が 北韓을 訪問 亦是 金日成과 會談을 가졌는데 이때 日本記者 10名도 北韓을 訪問한 바 있었다.

72년에 들어와서 北韓人士의 日本入國은 69名으로 增加하였고, 이 가운데 學者 10名 經濟使節團 7名, 技術者 12名도 北韓을 訪問한 바 있었다.

72년에 들어와서 北韓人士의 日本入國은 69名으로 增加하였고. 이 가운데 學者 10名, 經濟使節團 7名, 技術者 12名(未入國)으로 특히 經濟使節團과 技術者 入國問題는 日本의 「프랜트」 輸出과 關聯된 것으로 매우 注目を 끌게 했다. 朝總聯系의 日本再入國 許可는 142名으로 急激히 增加, 親族訪問 63名, 스포츠, 文化 51名, 學術會議 16名, 赤十字會談 10名, 商社 代表 2名으로 多樣化했다.

日本人의 北韓訪問도 빈번하여 年初부터 読売新聞 記者와 社会党

國際局長 「가와자끼」와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代表團(11名)을 비롯 各界 34 團體에서 北韓을 訪問, 兩側間의 往來가 活潑히 展開되었다.

특히 日本은 72年 南・北韓間에 「7.4 南北共同聲明」 發表를 계기로 하여 北韓으로부터의 入國을 緩和할 方針을 세운 以來 技術者 入國問題도 肯定的인 面에서 檢討하는 등 文化・學術・「스포츠」・經濟面의 人間 交流를 擴大하여 왔다. 그 동안 日本은 北韓으로부터의 入國에 對해서는 人道的인 경우에 限하여 「케이스・바이・케이스」로 認定한다는 消極的인 態度를 取해왔으나 南北韓의 對話가 進行됨에 따라 對北韓 人的交流를 점차 緩和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于先 日本政府는 同年 4月에 金日成 回甲祝賀名目으로 조총련계 幹部 6名과 一般省墓名目으로 12名의 조총련계 교포의 再入國을 許可한데 이어 5月에는 日本 「나라시노」高等學 축구팀의 「고바야시」(日本「텔레비전」放送網 株式会社 社長) 고분과 「야마구찌」규따(日本 體育協會理事) 團長이 同 축구팀과 北韓을 訪問・北韓 體育 指導委員會 오현주 委員長과 會談을 가져 日・北韓間 體育交流에 關한 具體的 論議를 한 바 있다.

그 후 日本 法務省은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된 即後인 7月 13日에 조총련계인 東京 朝鮮中・高 축구단(韓明珠團長 以下 26名)과 橫濱 朝鮮初級學校 音樂舞踊團(朴用德團長 以下 25名)의 北韓訪問과 日本再入國을 許可하였는데 前 「사또」內閣은 앞서 6月에 이들의 再入國 申請을 拒否한 바 있었다. 在日朝總聯의 北韓訪問後 再入國은 아직까지 省墓 等 「人道的」인 境遇에 局限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스포츠」, 文化交流에까지 再入國이 許可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當時 이 처지에 대해 日本 法務省은 「7.4 南北共同聲明에 의해 韓半島를 둘러싼 긴장이 緩和돼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하였다.

亦是 7월에 日本 社会党 議員 10名이 一週日間 北韓을 訪問하였고. 이보다 앞서 6월에 日本 公明党 團長과 康良燮 北韓 「對外交化連絡協會」委員長 사이에 署名된 共同聲明에서 公明党은 日·朝關係正常化에 關한 이른바 「5原則」을 闡明. 日·朝·國交早期 樹立問題와 核兵器 全面禁止에 關한 雙方合意 그리고 韓半島問題等에 關한 5項目의 基本的立場을 밝혔는데 즉 聲明에서

- ① 南北韓의 平和統一은 民族自決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UN의 北韓에 對한 敵視決議를 反對하며, 北韓代表는 無條件 UN에 招請되어야 한다.
- ③ 韓國으로부터 美軍은 철수해야 한다.
- ④ 韓·日條約에 反對하여 日·朝友好關係를 早速히 樹立해야 한다.
- ⑤ 在日 朝鮮人에 對한 差別待遇에 反對하며, 祖國에의 自由往來를 許可해야 하고 人事·文化·經濟交流 뿐만 아니라 通商代表部를 設置해야 한다는 것등을 主張하였다.

이 公明党의 北韓訪問團은 /金日成과도 會談 南北韓의 平和統一問題와 UN에서의 韓半島問題 美·蘇頂會談後의 國際情勢 ·日·朝關係

係의 正常化問題等に 關해 論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에 渡辺浩太郎 「니이가다」市長이 北韓을 訪問. 「다
나가」政府의 對北韓政策轉換을 促求하였고 이어 8월에 25명의
日本「스포츠」關係者들에 의해 「日·北韓 民間 「스포츠」交流 增進協會
가 東京에서 創設된 며칠 후 日本의 「노벨」賞 受賞者인 川秀樹 博士와
朝永振一郎 博士등 著名한 學者 20名은 聲明書를 發表 北韓과의 科學·
文化交流는 勿論 조속한 日·北韓 外交關係樹立을 促求하였다.

그리고 8月末 日本法務省은 日本에서 開催되는 「日本기계학회
才 2回 國際 「심포지움」에 參加를 申請한 6명의 北韓科學者들에
게 入國을 許可했는데 北韓科學者들이 日本에서 열리는 國際會議에
參加하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9월에 들어와서 日本 社會黨은 5日 北韓과의 關係正常化 實見
의 一環으로 「日·朝 文化交流協會」를 創立 同協會는 日·北韓間
의 文化交流擴大 友好關係의 強化를 目的으로 하였다.

飛鳥田 全國革新市長會 會長 大河內一男前 東京大總長等 各界 代
表 30余名이 參加하고 있는 同 協會의 當面 事業計劃은 北韓과
文化交流協定을 체결하고 北韓 萬壽台 무용단의 日本公演을 實現시
키는 일로 돼 있다.

또한 6日에는 日·北韓學術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日·朝 社會
科學 連帶委員會」가 東京에서 創立 北韓科學者의 研究書 번역·科
學者 交流, 「심포지움」開催등을 活動目標로 하였다.

17日에는 日本 每日新聞 特派員團 (團長 高橋武彦 論說主幹等 3

名)은 金日成을 訪問 會見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日本의 南北韓에 對해 均衡책을 實施할 것을 促求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산한 움직임속에 25日에는 日本과 北韓의 첫 「文化交流協定」이 평양에서 「日・朝文化交流協會」代表인 岩井章와 北韓 對外文化連絡協會 副委員長인 金광협 사이에 締結되었다.

이 「日・北韓文化交流協定」은 8個項의 具體적인 文化交流計劃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骨子は

(1) 日・北韓은 文化・藝術・教育・保健 體育・出版・放送分野에서 幅넓은 交流를 위해 努力한다.

(2) 평양과 東京에 新聞 放送記者 및 「뉴스・서비스」 要員들을 常駐시키도록 努力한다.

(3) 藝術家・영화제작가・演藝人들의 交流를 促進한다는 것 등으로 돼 있다.

한편 같은 25日에 日本 法務省은 전후 처음으로 7名의 北韓 經濟代表와 考古學者 4名의 日本 入國을 許可하였다.

北韓 「국제무역촉진회」 才1 副委員長 金錫鎮을 團長으로 하는 經濟代表團은 北韓 「國際貿易促進委」關係者 4名과 鉾物・食糧輸出入業者로 그리고 北韓 考古學研究所 副所長 朱榮憲을 團長으로 한 4名의 考古學者團은 모두 敎授로 구성되었는데 이 考古學者團은 「다카마스」 古墳 學術調査에 韓國學者들과 함께 參與하였다.

이 보다 며칠 앞선 15日에 日本 法務省은 조종련 45名에 對해 北韓一時 귀국을 認定 이들의 再入國을 許可하였는데, 日本政

府가 65年 11月以来 72年 3月까지 省墓「케이스」로 전후 6차례 모두 60名에 對해 再入國을 許可한 것에 比하면 이러한 45名이라는 數는 日本政府가 北韓訪問의 制限을 차차 緩和하고 있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10월에 와서 日本을 訪問한 北韓科學者들과 一團의 中의원 議員들은 12日 東京·平壤間의 科學交流를 增進할 것에 合意하였는 바 이것은 北韓 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長 金錫亨이 인솔하는 北韓科學者들과 日本 衆議院內의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 幹部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11월에 「日·朝體育交流促進聯盟」 理事長인 「야마구찌 규파」를 비롯한 同聯盟 代表團이 北韓을 訪問 73年 中에 日本과 9個 種目에 對한 교환경기를 갖기로 合意하였다.

즉 北韓側이 日本에 派遣할 種目으로는 女子籠球, 권투, 사격等 5個種目이며 日本側이 北韓에 派遣할 種目은 柔道, 「레슬링」, 축구, 卓球等 4個 種目으로서 都合 9個 種目に 걸쳐 있어 雙方間에 活潑한 「스포츠」交流가 可能하게 되었다.

73년에 접어들어 1月 中旬에 日本商社代表團 60名이 1陣과 2陣으로 各各 30名씩 나누어 北韓을 訪問한 것을 비롯하여, 日本 法務省은 印度에서 열리는 「亞細亞 敎職員團體 討議會」에 參席하는 朝鮮大學校 李時求 副學長等 朝總聯系 敎職員 3名에 對해 再入國을 許可했다.

그런데 朝總聯이 國際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北韓 以外의 才3國에 出國許可를 받은 것은 이것이 두번째 「케이스」이다. 亦是

1월에北韓「對外文化連絡委」副委員長 정광순은 平壤高等輕工業學校 축구단을 이끌고 日本을 訪問。親善競技를 갖는 한편 外交關係의 正式樹立에 앞서 日本과 經濟·文化·科學 및 「스포츠」分野에서의 交流를 增進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러한 提議는 鄭光淳이 日本 二階堂進官房長官을 訪問하여 한 것인데 北韓의 高位官吏가 日本政府가 日本政府의 각료와 會談을 가진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로서 注目되는 것이었다。

특히 鄭光淳은 1月8日 記者會見에서 北韓의 社會主義建設, 南北韓 統一問題, UN問題 등의 言及과 아울러 앞으로 國際大會에는 南北韓 단일 팀을 派遣할 수 있도록 韓國과 協議할 것이라고 意思를 表明하였다。

同 訪問中 鄭光淳이 今年 上半期中에 北韓 言論人들의 日本訪問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었지만 지난 5月 中旬에 北韓 勞動新聞主筆 鄭準基(記者同盟 委員長 兼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委員)을 團長으로 한 10名의 記者團이 日本新聞協會 招請으로 日本을 訪問 郵政相, 行政庁長官, 副總理 兼 환경청장관等 정부각료, 重要言論人 社會團體人士들과 広範한 接觸을 가졌다。

이 보다 앞서 2월에 日本 東京新聞堀田 편집국장이 北韓을 訪問 金日成과 會見을 가진 바 있다。

3월에 北韓 중앙방송위원회 副委員長 金昌浩를 團長으로 한 放送技術代表團의 日本訪問이 있었으며 이어 4월에 「萬壽台」 藝術團의 日本公演을 爲한 調查團 萬壽台 藝術團長 李湖南 등 5名)

이 日本을 訪問 各界人士들과 접촉을 가진 끝에 오는 7月 30日부터 9月 17日까지 50日間 「도오쿄」, 「나고야」, 「교오또」, 「오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후쿠오카」等地에서 總 43回의 순회공연을 갖기로 合意하였다.

「日·朝文化交流協會」와 朝日新聞社の 共同招請으로 이루어지는 「萬壽台·芸術團」의 日本公演 實現은 그동안 日·北韓間 文化交流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것임은 勿論이다.

또한 北韓은 4월에 日本 卓球「팀」(22名)을 招請 競技를 가진데 이어 6月 28日부터 21名(任員 9名 선수 12名)으로 構成된 北韓 女子籠球「팀」을 日本에 派遣 親善競技를 가졌다.

이는 72年 11月 「日·朝 「스포츠」 交流促進聯盟」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하였을 때 73年度에 日本과 北韓이 9個種目的 교환경기를 갖기로 合意한데 따라서 實施된 것이다.

73년에 이르러서는 非政治的 交流의 一環으로 北韓과 日本間의 各界 代表들의 相互訪問이 急增하였다. 日本側의 北韓訪問은 日本 放送界 代表團, 北海道議會 代表團, 朝日新聞 代表團, 体育會 代表團 등을 늘 수 있으며, 北韓側의 日本訪問은 北韓의 教育勞動界 代表團, 萬壽台芸術團, 鉄鋼技術 代表團, 放送使節團 등을 늘 수 있다.

이와 같이 各界 各層의 代表團의 相互訪問이 73年 後半期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從來 日本政府가 朝總聯 代表의 再入國許可는 신중을 기하면서 制限조치를 취해왔으나, 이것마저도 어느 정도 緩和하여 朝總聯系 同胞의 日本 再入國도 許可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日本과 北韓간의 人士交流는 이제 하나의 既定事實로
굳어져 가고 있으며 人士交流도 非政治的 단계에서 政治的 단계로
접어들었다. 74年 6月 6名으로 構成된 日本体育会 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한 바 있는 데 이것은 体育人의 公式訪問으로는 첫
「케이스」이었다. 지난 10月 東京에서 개최된 才61回 IPU
總會에 日本이 北韓代表團을 招請하였고, 이에 따라 朝總聯의 代表
가 包含된 北韓代表團이 日本을 入國한 것을 契機로 해서 日本과
北韓간의 人士交流는 非政治的 次元에서가 아니라 政治的 次元에서
다시 말하면, 民間제벨을 벗어나서 政府間 제벨에서도 더욱 活潑한
人士交流가 展開될 것으로 予想된다.

4. 接 近 状 况

가. 接近政策의 背景

70年代에 접어들어 國際情勢의 變化와 함께 北韓은 國際的 環境變化에 適應하는 一連의 對外政策을 斷行하였는데 그것이 對共產圈 및 對中立國 外交에서 對西方外交에로의 政策的 方向轉換이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對西方諸國과의 關係改善 特히 對美接近政策에 크게 力點을 두고 있다.

첫째 北韓은 71年 11月 勞動黨 5期 才3次 全員會議에서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결정하고, 國際的 環境變化에 適應하는 對外政策을 展開하게 되었는데 그 結果로 나타난것이 西方과의 特히 對美接近의 試圖이다. 그리고 特히 北韓은 南北韓 双方에 均等한 政策을 實施하는 資本主義國家와도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關係를 맺겠다고 對西方外交의 原則을 表明한 바 있다.

둘째. 이와 같은 北韓의 對美接近政策에로의 方向轉換은, 안으로는 金日成 一人獨裁體制를 더욱 強化하고 밖으로는 柔軟한 對外姿勢를 보임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有利한 立場을 獲得하려는 데에 있다. 즉 美·中共의 和解接近 美蘇의 共存協調體制, 日·中共의 國交正常化 등 國際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副應하여 國際的孤立을 면하고 韓國의 6.23 宣言에 대한 國際的 支持를 화해시키려는 데에 있다.

셋째. 美·中共의 關係改善, 日·中共의 和解 美·日·蘇에 의한 平和共存體制로 인한 蘇聯과 中共의 反美政策의 緩和는 亞細亞 共產主義의 共同戰線의 形成에 있어서 北韓의 對外活動에 크게 期待

를 주지 못할 것임은 勿論, 中共과 蘇聯의 對外的 平和指向政策과 그 相互間의 격렬한 紛爭對立樣相은 北韓으로 하여금 對外政策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네째로, 莫重한 軍事費라든가 經濟計劃과 같은 國內問題의 深刻性으로 말미암아 國際情勢의 變化에 順應하는 美利追求의 對美接近政策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北韓이 對美強硬政策을 순환하고 어느정도의 柔軟한 接近政策을 試圖하게 된 底意는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은 對美外交姿容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伸縮性을 보임으로써 從來의 好戰的인 「이미지」를 扞拭하고 平和愛好的인 「이미지」를 自由世界 特히 美國의 輿論社會에 심으려는 데에 있다.

둘째, 北韓의 유엔代表部 設置를 契機로 하여 對美接近을 積極推進함으로써 美國 朝野의 親北韓 同調勢力의 基盤을 構築하려는 데에 있다.

세째 現實肯定의 方向으로 政策을 遂行함으로써 韓半島에서 政權이 2個일수 밖에 없다는 所謂 「두개의 韓國論」을 現實化하여 北韓의 地位에 대한 認定을 받음과 동시에 共產化 統一實現의 基盤을 構築해 보자는 것이다.

네째로는, 偽裝平和攻勢를 内外에 大的으로 展開함으로써 韓國의 立場을 孤立시키고 나아가 韓半島에서의 緊張高潮의 原因을 韓國側에 轉嫁시키려는 데 있다.

다섯째 韓半島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 美國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선은 民間「베이스」에

서 人事交流를 正当化하고· 그러한 무-드를 美国人들에게 느끼게 함과 동시에 美国人들의 对北韓態度 變化를 誘導하여 親北韓 輿論을 造成시키려는 데에 있다

여섯째 对美關係改善을 통해 韓·美離間은 勿論 韓國의 背後支持 勢力의 弱화를 圖策하는 反面 國際社會에서의 北韓의 地位를 向上 시킴으로써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서 北韓에게 有利한 雰囲気을 造成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北韓의 对美接近姿勢는 72년에 처음으로 美國 言論人과 學者들을 招請함으로써 具体化되기 始作하였고 73년의 才28次 유엔 總會를 앞두고 北韓의 유엔 代表部가 뉴욕에 설치됨으로써 北韓의 对美人民外交의 展開는 本格化되었다.

나. 接近狀況

美國에 대해서도 北韓은 전보다 부드러운 態度를 보여 왔고 특히 駐韓美軍撤収가 对美關係改善의 前提條件이 아님을 밝힌 적도 있다. 이러한 것은 事實上 美國인들과의 「人民外交」를 公開示唆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北韓의 对美接近은 对日本接近만큼 積極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는 아 니하였으나 그 接近方式은 비슷하다.

첫째 72年 5月の 「뉴욕 타임즈」의 「해리슨 솔즈베리」, 「존·리」 두 記者와 「워싱턴·포스트」의 「셀릭 헤리슨」 記者의 招請 訪問을 契機로 言論人을 통한 对美接近을 展開한다. 그리하여 美國 言論界의 对北韓 新近姿勢와 輿論을 誘發 造成한다.

둘째 72年 7月에는 「하바드」大学の 「제롬·코헨」教授가 學者로서는 처음 그의 家族과 함께 招請을 받고 北韓을 訪問하였는데 이를 契機로 美國學界에의 浸透을 노리고 있다.

셋째 7-4 南北共同聲明以後 一部 左傾的 政治性을 띤 僑胞들을 통한 在美僑胞社會에의 浸透이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71年 6月 20日 「워싱턴」에서 창설된 소위 「祖國平和統一在美促進會」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團體를 통해 在美僑胞들의 包摂을 積極 展開할 것이다.

그렇게 成功的인 것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地域과는 狀況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째로는 親善團體의 組織을 통한 弘報活動의 展開이다. 美國에 설치된 최초의 親北韓團體는 1971年 2月에 「브릿지·포드」大學의 「하워드·엘과슨스」 教授를 責任者로 하는 「美·朝友好弘報協會」이다. 그 設置目的은 對美宣傳活動을 展開하며 對美人民外交의 據點을 確保하려는 데에 있다. Korea Focus 라는 宣傳冊子를 發刊하여 美國의 여러 大學에 配布한 바가 있고 특히 北韓宣傳映面도 上映한 바가 있다. 73年 6月에는 이 團體의 代表들이 北韓을 訪問한 바 있는데 그 目的은 28차 유엔對策을 위한 相互協助問題, 同協會의 運營資金 支援問題, 美國內의 親北韓勢力의 擴大問題 등을 協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 유엔代表部를 통한 西方側 外交界 또는 美國政界에의 침투이다. 北韓은 유엔 專門機構인 世界保健機構에 처음으로 加入함으로써 73年 6月 1日에 유엔 歐洲事務所를 設置하게 되었고 또

한 유엔에 韓国과 同時 參席하게 됨으로써 美國政府로부터 公式으로 美國入國 비자도 얻게 되어 73年 6月 28日에 유엔에 北韓代表部를 設置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유엔 代表部를 통해 對美人民外交를 積極 展開하고 있으나 美國政府의 對北韓態度에 커다란 變化가 없는만큼 활발한 것은 못되며 相當한 制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발판으로 對美人民外交는 점점 활발해 질 것이다.

美國이 戰後 처음으로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公式으로 表明한 것은 72年 3月 로저스 國務長官의 記者會見에서의 發言이다. 卽「北韓을 包含한 모든 나라와 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이 美國政府의 方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後에는 對北韓 旅行의 制限措置를 1年씩 延長해 오고 있으나 로저스 國務長官의 對北韓方針 發表가 있는 後인 同年 5月에 뉴욕타임즈의 「헤리슨 솔즈베리」와 「존. 리」와 「워싱턴 포스트」의 「셀릭 헤리슨」記者가 北韓을 訪問하게 되었다.

로저스 國務長官은 또한 72年 6月 27日 「칸베라」에서 開催된 才 17次 SEATO (東南亞條約機構) 理事會議 演說에서 비로서 北韓을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란 公式 이름으로 呼稱함으로써 美國의 對北接近의 積極的 態度를 示唆해 수었다. 이 公式名稱의 使用에 대해 美國 務省 當局은 對北韓政策을 轉換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North Korea 라는 名稱을 使用할 것이라고 解明하였다.

그러나 美國으로서는 對北韓關係改善에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態度

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美國官吏로서 처음으로 北韓의 公式名稱을 사용했다는 데에 意義가 있었던 것이다.

美國이 對北韓關係改善의 첫 措置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記者와 學者의 北韓訪問, 北韓의 公式名稱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어 73년에 들어 와서 韓國의 6.23 宣言 發表가 있자 美國은 이를 積極 支持하는 한편, 對北韓關係改善과 南北對話를 통한 韓半島의 現狀維持에 보다 積極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 6.23 宣言의 發表로 北韓은 유엔의 전문기구등 其他의 國際 機構에 加入하게 되었고 現在도 加入을 서두르고 있다.

北韓이 처음으로 國際機構에 加入한 것이 國際保健機構(WHO)이다. 이를 契機로 1973年 6月 1日에는 北韓의 유엔歐洲事務所의 設置가 許可되었고, 6月 26日에는 訪談 外交部長이 正式으로 유엔 代表部 設置를 申請하였다. 이에 대해 美國務省은 北韓의 유엔代表部가 설치될 경우에는 유엔의 規定에 따라 北韓代表의 美國入國 「비자」의 發給을 拒否하기 困難하다는 美國側의 立場을 韓國에 通告하는 한편 北韓 代表團에의 비자 發給을 公式 發表하였다.

다음 날인 6月 28日에는 北韓의 유엔 代表部 設置가 正式으로 設置되었고 7月 19日에 北韓의 權敏俊을 團長으로 하는 15名의 傭서버團의 任命을 通告해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자가 正式으로 發給되었고 北韓 代表들이 終戰 4半世紀의 처음으로 美國 땅을 밟게 되었다. 한편 美國으로서도 北韓의 公式代表를 美國 땅을 밟게 한 첫 措置이었다.

이와 같은 美國의 對北韓 接近의 背景과 戰略은 대개 이러하다.

① 旅行制限対象国인 越盟, 쿠바,北韓 중北韓이 美·中共 관계 개선에 가장 큰 여행을 받았고, ② 南北韓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져 이미 接觸을 시작했으며 前보다 緊張은 緩和되었으며, ③ 「닉슨 독트린」에 따라 美軍은 韓半島에서도 早晚間 撤収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첫째,北韓과 人士交流를 擴大함으로써北韓의 對美強硬姿勢를 緩和하여,

둘째, 才28次 유엔 總회의 「韓國問題 合意聲明」이 보여 준대로 南北韓 平和共存을 誘導하고

셋째,北韓의 好戰的 態度를 순화시키는 한편,

넷째 中·蘇를 통해北韓의 戰爭기도를 抑制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美國의 對北韓接近의 基本戰略이다.

다. 美國 「平和條約」提議

北韓은 74年 3月 25日 最高人民會議 才5期 才3次 全員會議에서 政務院 副總理 兼 外交部長 許淡의 報告를 통해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하고 나섰다.

먼저 그들이 美國과 締結하고자 提議한 平和協定の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雙方은 서로 相對方을 侵犯치 않을 것을 誓約하고 直接的武力衝突의 모든 危險性을 除去할 것. 단 美國은 南韓當局者들의 戰爭挑發 策動을 使주하지 않으며 南北韓이 共同聲明에 따라 自主的으로 平和的으로 統一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으며 韓半島의 內政에 一切 干涉하지 않을 것에 대한 義務를 질것

② 双方은 武力增強과 軍備競争을 그만 두며 韓半島境外로부터의 一切의 武器와 作戰裝備 軍需物資의 搬入을 中止할 것.

③ 韓半島에 있는 外國軍隊는 유엔군의 帽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期間 안에 一切 武器를 가지고 모두 撤去할 것.

④ 南韓에서 모든 外國軍隊가 撤去한 후 그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도 되지 않을 것.

그리고 問題의 討議를 위한 場所는 現在 双方 사이에 接觸이 이루어지고 있는 板門店이 適當할 것이며 相互 合意가 이루어진다면 才三國도 無妨할 것임. 解決해야 할 問題의 重大性으로 보아 討議에 參加할 双方 代表團은 現軍事停戰委員會보다 한 級 높은 代表들로 構成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 內容을 分析해 볼 때 첫째 對美平和協定 締結을 위한 會談에서 韓國을 除外하였다는 점. 둘째 그러므로 現休戰協定の 當事者로 되어 있는 美國과 直接 平和協定 締結을 위한 會談을 갖겠다는 점. 셋째 現行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 代置하겠다는 점 그리고 넷째로 對美平和協定 締結 提議의 確信을 美國政府에 直接 하지 않고 美國 議會에 보냈다는 점 등이 主要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北韓이 이러한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한 底意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北韓이 基本目標로 하고 있는 韓半島 武力赤化의 障礙要素로 생각되고 있는 駐韓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은 이 提議를 통해서 그들이 對美關係에서 노리고 있는 여러가지의 부수적 効果를 얻자는 데에 있다. 對美 平和協定 締結이란 것은 최초부터 實現 不可能한 것이며 非合理的이란 것은 그들 스스로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韓美離間을 획책하고 對美接近에서 무언가 흥정꺼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本性이다.

即 첫째로, 韓國政府의 對美依存性에 의한 南北問題의 解決은 어렵다고 造作宣傳할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現在르선 駐韓美軍의 撤収가 당장 不可能하더라도 이런 提議를 함으로써 對美非難 口實을 삼아 一次的으로 駐韓 유엔軍司의 解体를 企圖해 보려는 데에 있다. 美國은 休戰協定の 當事者가 아니다. 休戰協定の 當事者는 유엔軍이다. 그러므로 美國과의 平和協定 締結을 운운하여 美國이 혹시 이에 應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유엔軍司의 解体問題에 대한 그들의 目的達成을 實現해 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軍司의 解体問題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所管事項이므로 유엔에서의 해결은 도저히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그들 自身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美國議會議의 對韓輿論을 利用해 보자는 것이다. 即 美國의 對韓軍事政策에 관한 美國議會議의 一部 人事들의 批判이 相當히 高潮되어 있음을 利用, 美國政府의 對韓軍事支援에 대한 中斷壓力을 誘導코자 한 것이다.

네째로는 이를 契機로 積極的인 對美接觸을 試圖함으로써 韓美간의 離間을 劃策하며 동시에 韓國의 國際的 地位의 強化나 孤立化를 企圖한 것이라 하겠다.

5. 北韓의 對美·日 接近과 美·日의 最近動向

가. 韓半島問題와 日本의 動向

最近 日本은 「포드」行政府의 對韓政策과 關聯하여 韓半島問題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들을 새로이 提起되고 있다.

지난 7月 初旬에 就任한 木村俊夫 日本外相은 今年度 유엔總會에서의 日本의 行動計劃에 관한 發言을 비롯하여 韓半島問題에 관한 여러 차례의 發言을 하여 우리에게 衝擊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對韓政策의 轉換을 示唆해 주었다.

먼저 그는 8月 16日의 記者會見에서 이번 才 29차 유엔 總會에서 韓半島의 解決을 위해 美·蘇·中共의 外相들과 積極的인 會談을 갖겠다고 말했다. 즉 그는 韓半島의 緊張은 冷戰構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美·日·中·蘇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할 수 있게 國際會議의 召集을 構想하고 있다고 示唆했다.

8月 19日 日本參議院 予算委員會의 質詢에 대한 答辯에서 木村外相은 아직은 그 時期가 빠르나 그러나 將來의 언젠가 유엔의 情勢에 變化가 생긴다면 日本의 北韓承認을 考慮할 수 있다고 하여 北韓承認을 示唆하였다. 이와 동시에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한 69年 11月의 美·日 共同聲明의 이른바 離國條項을 宣稱한 이래 日本의 對韓政策에는 變化가 없으나 그간 「몇가지의 狀況 變化」가 있어서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發言함으로써 日本의 安全이 韓國의 安全에 있는 것이 아니라 南北韓에 걸친 韓半島全體에 있다는 새로운 次元을 모

색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었다.

8月 20日에는 南北共存關係와 韓半島의 平和問題에 言及하여 木村外相은 「8月 15日에 천명한 韓國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三 大原則은 韓半島의 平和를 위해 커다란 意義가 있다. 그러나 詳細히 檢討한 후 이에 対応하겠다.」고 한 다음 「南北韓이 7.4 南北共同声明의 精神으로 돌아가 早速히 南北對話가 回復되기를 希望한다」 따라서 「韓半島問題의 4大國 保障論은 유엔을 통해 國際적으로 調整할 必要가 있다는 構想이나 아직은 그러한 環境이 成熟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韓半島의 現狀固定을 위한 어떤 解決에 日本이 積極 參與할 事前 布石을 暗示했다.

8月 29日에는 參議院 外務委員會에서 木村外相은 韓國에 대한 北僞의 威脅이 없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國民들의 對日 感情을 刺戟하여 韓日關係를 惡化一途에 치닫케도 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 政府와 日本 与党的 非難과 反駁이 비등하자, 日本 外務省 實務障 들은 木村外相 發表의 補充說明에서 「南北韓의 軍事的 均衡이나 유엔軍의 韓國駐屯 등의 現象으로 보아 가까운 時期안에 北韓으로 부터 武力에 의한 侵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변명한 다음 「北韓의 威脅」이란 意味는 戰力에 의한 侵略을 말하는 것이 고 北韓의 게릴라 浸透나 思想工作은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日本이 새로운 次元에서 對北韓接近을 모색하고 있음을 넌지시 示唆해 준다.

한편 木村外相의 이러한 發言을 契機로 日本의 三大野党인 社会 党 共産党 公明党 등은 9月 4日 日本의 對韓政策의 根本的 轉換

을 要求했는가 하면, 自民党的 韓日幹親會 所屬議員 26名은 木村의 發言을 맹렬히 功駁했었다.

9月 5日에 이르러서는 더욱 경악스러운 發言이 터져 나왔다. 즉 日本外務省의 松永條約局長이 衆議院 外務委員會에서의 答弁에서 「韓國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合法政府가 아니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하여 韓國의 唯一合法를 否認하는 重大한 發言을 했다. 木村外相도 이어서 南北韓에 緊張이 尚存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韓國政府가 韓半島에 있어서 唯一合法政府라는 認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이러한 妄言들은 韓·日基本條約의 精神에 배되는 것인데도 9月 6日에는 「韓國問題에 대한 發言은 韓·日基本條約에 모순이 없다」고 木村外相은 되풀이 주장했다.

다음 우리의 注目を 끄는 것은 日本 自民黨 所屬이며 「아시아·아프리카問題研究所의 代表인 宇都宮德馬의 對韓動靜이다. 그는 「韓半島問題의 美·日會議」 開催라는 名目으로 美國을 訪問, 美國의 朝野 政界人事, 反韓國的인 學界人事들과 廣範하게 接觸한 후 8月 5日부터 15日까지 北韓을 訪問하고 金日成과 會見했다. 이 자리에 그는 「韓國政府가 戰爭을 觸發할 可能性이 있다」고 妄言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發言들을 통해 볼 때 日本·北韓의 接近과 交流는 더욱 積極的인 새로운 次元의 段階에 접어들었고 同時에 日本이 北韓의 對日接近을 現實的으로 받아 들여 南北韓 等距離政策을 露骨化하고 既定事實化의 바탕위에서 對韓政策이 아닌 對韓半島政策을 優先視하여 그들의 實利追求를 도모하려는 政策轉換이라 볼 수 있다.

日本이 韓・日간의 基本友好關係에 금이 가고 있음을 무릅쓰고도 北韓과 接近하려고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打算이 있을 것이다.

日本の 急旋回的인 對北韓政策의 轉換의 底意는 다음과 같이 推測될 수 있다.

첫째 韓國立場을 계속 支持하되 北韓과 더욱 親近 即 政治的 接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既定事實化 한다.

둘째, 韓半島의 現狀固定에 의한 平和的 定을 北韓과의 接近을 통해 실현한다 다시말하면, 日本の 安保問題를 韓國의 安全에서가 아니라 韓半島 全體의 定定에서 求하려는 것이다.

셋째, 美國의 對北韓關係가 好轉될 때는 日本도 이에 뒤지지 않게 北韓承認 내지는 修交를 즉 實踐에 옮기려는 政策 轉換이다.

넷째, 日本은 紛爭地域으로서의 要因이 아직도 남아있는 韓半島問題 解決에 機先을 制함으로써 主導的 役割을 하고 四強의 一員으로서 實質的 地位를 높혀 積極 參與할 수 있는 發言權을 增大시켜 보자는 것이다.

다섯째, 오는 11月 25日의 美蘇頂上會談에서 協議可能性이 있는 韓半島問題를 國際問題化시켜 韓・美・日 三角關係를 再評價 定立하는 동시에 東北亞의 勢力均衡 形成에 있어 日本の 眞國主義化를 우려하고 있는 蘇聯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一連의 움직임을 통해 또한 앞으로 韓半島에서 展開될 狀況을 予見하여 北韓에 대하여 柔軟한 姿勢를 취하여 兩北 韓 等距離外交를 現實化할 方針이다.

나. 韓半島問題와 美國의 動向

지난 8月 12日에 「닉슨」을 계승 大統領職에 就任한 「포드」는 從來 「닉슨」時代의 行政府 獨走를 벗어나 行政府와 國會 간의 相互 有機的인 協調에 바탕을 둔 政策遂行을 다짐하면서 緊張緩和, 和解追求라는 「닉슨」 行政府의 外交政策을 더욱 擴大 推進하고 있다.

美國의 對外政策 遂行이란 면에서 볼 때 韓半島問題는 中, 蘇紛爭, 美日의 外交的 競爭이란 狀況 속에서 이들 四國의 利害關係가 서로 相衡하는 複雜한 力学關係에 놓여 있는 難題이다.

美國議會는 最近에 들어서 韓半島問題를 國際的 次元에서 關係國들과 協議하여 加速的인 外交的 措置를 취하도록 美行政府에 壓力을 加하고 있다.

유엔도 지난 28次總會때부터 冷戰的 次元에서가 아니라 和解追求의 國際潮流의 見地에서 韓半島問題를 다루도록 합의한 바 있다.

事實 對韓政策 내지는 對韓半島政策에 대한 美國議會와 行政府의 최근의 새로운 움직임은 韓國問題의 實質的 解決을 위한 어떤 實踐的 段階에 들어 간 感을 주고 있다.

지난 8月 1日 美上院 歲出委員會는 韓國등 極東地域의 美軍의 再編成 및 統合을 建議하는 對國防省 勸告案을採択하였다. 이 勸告案에 의하면 韓國에 駐屯하는 유엔軍司令部, 駐韓美軍司令部, 駐韓美8軍을 하나로 統合하여 駐韓美軍司令部로 單一指揮 體制化시키며, 동시에 前方에 配置된 美軍을 漢江以南으로 移動시킴으로써 戰爭이

일어날 경우에도 이에 自動적으로 말려 드는 것을 피하며 76 會計年度부터는 部分的 撤軍을 實施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을 것을 建議하고 있다.

이에 대해 美國防省의 한 官更는 議会の 勸告案을 國防省으로서도 檢討하기 시작했다고 發表했는가 하면 美國務省도 駐韓美軍의 予備軍化를 示唆한 바 있다. 即 美軍이 韓國에 駐屯하는 것은 政治的 心理的 効果에 불과한 것이며, 實質적으로는 美太平洋司令部의 管轄로 하여 機動予備軍化한다는 것이다.

美議会和 行政府의 이러한 움직임은 美軍의 立場에서 戰爭抑制에 戰略的 重點을 두어 人員의 減縮과 經費의 節約을 期하는 동시에 共產側이 提案한 駐韓유엔軍司令部的 解体問題가 비록 安保理事會의 所管事項이긴 하나 強大國 간에 어떤 劇적인 合意가 이루어져 實現될 경우에 對備 事前準備作業을 해 두자는 것으로 보인다. 커신저 美國務長官도 今年초순에 유엔軍司令部的 解体에 따른 代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음을 明白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8月 13日의 第353次 軍事停戰委員會 本會談에서 유엔軍側은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活用을 위한 4個項을 提議하였다.

① 南北雙方이 DMZ 内の 一定区域内에서 兩側의 軍人을 撤收시키고 雙方의 共同監視小組가 이 地域을 監視한다.

② 軍事停戰委員會는 DMZ 内の 一定区域内의 모든 裝備物과 要塞 등의 破壞와 移動狀況을 論議하고 調整한다.

③ 軍事停戰委員會는 이미 撤收, 撤去된 一定區域을 같은 方法으로

擴大하여 단계적으로 DMZ를 全面非武装化한다.

4) 軍人 및 軍事施設이 除去된 후에는 兩側의 非武装된 民間人들만의 出入을 許用하고 이 地域을 平和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개간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엔兩側은 DMZ의 平和的 活用に 관한 提議를 71年 6月과 72年 1月에도 한바가 있다.

「클레멘츠」 美國防次官은 9月 22日부터 24日까지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第7次 韓美安保會議에 參席하고 이에 東南亞 巡訪을 마치고 歸國 후에 가진 記者會見에서 74會計年度에는 駐韓美軍의 兵力水準에 대단한 減縮이 없을 것이나 駐韓美軍 가운데 1千2百名 내지 1千4百名으로 構成된 「나이키·허큘리스」 對空「미사일」部隊의 一部撤收問題를 檢討하고 있는 중임을 論及하고 이 問題는 韓國政府와 사전에 充分한 協議를 갖겠다고 附言하였다.

그런데 8月 30日 「스틸웰」 駐韓美軍司令官은 韓國과 日本駐屯의 美軍을 管掌하고 있던 美太平洋地區司令部 傘下の 太平洋地區陸軍司令部가 74年 12月 31日을 期해 解体된다고 發表하였다.

이러한 發言들은 駐韓美軍의 機能에 관한 韓國側 評價나 期待와 美國側 觀點 間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即 韓國側이 美軍의 駐韓을 北韓의 再南侵時 美軍의 即刻介入의 擔保로 看做하고 있는데 반해 美國側은 美國의 對韓公的의 象徵物 내지는 北韓의 戰爭挑發을 抑制하는 政治的 心理的 効果의 役割로 보고 있다.

이것은 北韓을 비롯한 共產側이 유엔軍司令부의 解体와 駐韓美軍

의 撤収를 끈질지게 늘고 나오고 있는데 대한 対応措置가 아닌가 判斷된다. 今年 才 28次 유엔 總會에서도 共產側은 ① 유엔旗幟下에 南韓에 駐屯하고 있는 모든 外軍撤収가 必要하다는 事實을 考慮하고, ② 直接關係되는 当事者들은 유엔旗幟下에 南韓에 駐屯하고 있는 外軍撤収問題의 解決을 위해 適切한 方法을 取할 것으로 期待한다는 內容의 決議案을 8月 23日에 提出하였다. 뒤따라 9月 3日에 美·日의 西方側은 「休戰協定の 계속 遵守와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徹底한 維持를 保障해야 할 必要性을 勸案하여 유엔安全保障理事會가 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포함하여 그의 責任下에 屬하는 韓國問題의 諸局面에 관해 直接 当事者와의 協議下에 適切한 時期에 討議되기를 바란다」는 內容의 「韓國問題 合意事項의 完全履行과 韓半島 平和維持의 緊要性」 決議案을 提出하였다.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와 關聯하여 美國議會와 行政의 對北 接觸에 관해 우리의 注目を 끄는 報道들이 나돌고 있다. 9月 3日의 美紙報道에 의하면, 美國議會는 韓半島政策의 再檢討를 위해 北韓에 使節團을 파견할 計劃을 推進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上院 外交委員會는 北韓으로부터 招請狀이 오면 同委員會의 專門委員을 平壤에 파견할 것을 希冀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은 지난 72年以來 몇몇 學者나 言論人 等 制限된 範圍 내에서 北韓에 보내 非公式 接觸을 가져 왔으나 최근 들어 公式接觸의 機會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美國과 北韓과의 秘密協商說도 나돌고 있다. 美國務省은

지난 8月 23日 美國의 對北韓秘密會談提議說에 對한 論評을 要求 받고 全혀 아는 바 없다고 對答하면서 韓國問題는 南北韓 兩側에 의해 解決될 性質의 것이라는 美國政府의 從前態度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美北韓의 秘密接觸說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宇都宮德馬議員의 北韓訪問後의 發言을 들 수 있다. 即 北韓의 金日成은 美國이 어떤 才 3世界의 指導者를 통해 適當한 機會에 秘密會談을 갖자고 提議해 왔다고 말하더라고 日本每日新聞이 宇都宮議員의 發言을 引用 報道했다. 이러한 美國議會와 行政府의 對北韓接觸의 새로운 움직임은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지난 3月 23日 北韓이 美國議會에 보낸 對美平和協定締結 提議에 對한 美國의 反應이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注目을 끈다.

또한 美國은 北韓 越盟과 함께 旅行制限措置를 취해 오던 「큐바」에 對해 이의 제한조치를 해제한데 이어, 「큐바」와의 修交에 着手했으며, 蒙古와도 修交가 거의 이루어질 단계에 있으며, 東獨과는 이미 修交에 合意했다고 9月 4日 「존·킹」國務省 代弁人이 發表하였다. 東獨承認이 바로 分斷國들에 對한 美國外交政策의 先例가 될 것임을 지적하고 分斷國들이 東西獨의 경우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從來 美國이 敵對國家로 看做해 왔던 北韓, 越盟과도 修交할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했다. 이로써 美國은 2次 大戰後 理念問題로 갈라진 分斷國의 雙方을 外交的으로 承認하는 最初의 先例를 남기게 되었으며 앞으로 美國의 分斷國政策에 對한 主要轉機가 될 것인바, 東西獨의 경우와 같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이 實現되면 美國과 北韓과의 修交可能性을 強力히 示唆해 주고 있다.

도 適用된 後로는 對韓政策을 非理想化하여 現實政治의 次元에서 定定을 追求하고 南北平和共存關係의 制度化를 積極 聲援해 왔다. 그러나 韓半島問題의 解決은 周辺強大國들간의 勢力均衡의 力学關係와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勘案하여 韓國의 6.23 宣言을 積極 支持하면서 北韓을 南北對話에로 誘導. 南北共存關係를 定立하기 위한 對北韓接近에 한층 더 拍車를 加하고 있다.

北韓의 對美·日接近과 美·日의 최근 對韓半島政策變化는 유엔軍司의 解体에 對備한 韓半島의 새로운 安保方式의 모색을 促進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側의 유엔軍司解体결의안제 의와 關聯하여 美國은 이미 그 代案을 檢討 中에 있다고 하였지마는 安保理를 통한 解決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木村日本外相도 南北韓等距離 外交政策의 推進을 露骨化하는 發言을 거듭해 왔으나 駐韓유엔軍司는 그 에 대처할 滿足스러운 代案이 없는 限 반드시 存続해야 한다고 했다. 蘇聯外相 「그로미코」는 才29次 유엔總會의 演說에서 「유엔것발하의 모든 外軍의 撤収」를 主張하면서도 韓美防衛條約에 의 한 美軍의 韓國駐屯은 韓·美當事國간의 問題라고 말함으로써 유엔軍司解体이후의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에 대해 어떤 保障이 필요함을 示唆했다.

따라서 韓半島의 새로운 安保方式이란 유엔軍司의 解体이후에 을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위한 미·일·중공·소간의 合意 또는 保障으로 해석된다.

美國과 日本은 多같이 對北韓接近을 통해 南北韓共存關係를 모색하는 한편 北韓과의 修交나 承認을 暗示하고 있으나 接近方式에

相當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卽 東西獨 간의 基本關係가 確定되고 西獨과 蘇·東歐와의 關係樹立이 매듭지워지고 兩獨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한 후 美國이 東獨을 承認하고 國交를 樹立한 獨逸의 경우와 같이, 韓半島에서도 南北韓이 自主的 努力으로 平和 共存의 基盤을 마련하고 유엔에 同時加入한 후에는 周邊強大國의 諒解下에 北韓과의 修交를 推進하겠다는 것이다. 日本은 經濟大國이고 軍事大國이긴 하나 韓半島問題에의 政治的 發表權은 크지 않은 狀況에 있기 때문에 이런 狀況을 打破할 수 있는 四大國에 의한 韓半島平和保障에 더 많은 比重을 두고 있다.

그러나 美日의 對北韓 修交는 北韓이 계속 緊張을 造成하고 있고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 忌避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다음과 같은 條件들이 充足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어야 할 것이고, 韓半島에 대한 強大國간의 利害關係의 一致가 있는 후 또한 韓國의 對中·蘇와의 關係改善이 우리의 期待水準 이상으로 進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條件充足에는 우리 自身들의 能動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 ① 北韓과 美·日과의 接近을 逆利用하여 北韓의 自由化 促進等 副次的 利得을 極大化한다.
- ② 美·日과 安保 統一政策의 緊密한 協調를 維持하면서 進歩的인 政治人, 言論人, 學者들의 對韓 理解와 支持를 獲得키 위한 對美·日 弘報活動을 積極 展開한다.
- ③ 美國의 對韓防衛役割이 美國의 和解政策에 一致한다는 韓·美日 安保概念을 調整해 가는 한편 日本의 急速한 北韓接近을 견제

해 간다.

④ 유엔軍司問題에 대한 韓國의 独自の인 具體的인 代案을 講究求해 둔다.

⑤ 南北韓 相互競爭 特히 北韓의 전쟁준비가 韓民族 全体에 不利함을 促求하는 동시에 南北對話를 계속한다.